

조선 후기 의과 입격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羅榮勳**

I. 머리말	IV. 친족 네트워크의 결속 배경
II. 의과 입격자의 동성 부계 친족 네트워크	V. 맺음말
III. 의과 입격자의 통혼 네트워크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623년(인조 1)부터 1870년까지 의과에 입격한 1,1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들의 결속 배경을 살폈다. 특히, ‘통혼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의과 입격자의 가계를 중심으로 결속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동성 부계 친족’의 강한 결속을 지닌 것은 물론, ‘통혼 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1,100명 가운데 886명, 80.5%가 의과입격자간의 통혼 관계로 결속되어 있었다. 의과 입격자 177개 가계 가운데 156개 가계는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통혼 관계로 얽혀 있었다. 의과 입격자가 이처럼 강력한 결속을 했었던 배경에는 왕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원 집단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대로 ‘世醫’로 결속하여 왕실의 필요에 부응하였다.

주제어 : 의과, 의관, 의원, 친족 네트워크, 결속, 호혜, 잡과, 중인, 내의원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18-RC01).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I. 머리말

조선 후기 醫科 入格者는 잡과의 하나인 의과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하는 의원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內醫院과 典醫監, 惠民署 등 조선의 三醫司로 불리는 관서에서 근무하였다. 이들은 조선 후기 이후 중인 계층에 속했고, 譯科, 律科, 陰陽科와 함께 잡과 전문직에 종사하며 그들만의 공고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었다.¹⁾ 전문직 중인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신분 조직이자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한 집단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전문직 중인은 ‘雜科榜目’ 등 주요 사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전문직 중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인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²⁾ 또한 특정 가문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계통의 연구는 잡과 가운데 역과에 대한 성과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다.³⁾

의과 중인만을 별도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신분적 성격을 다룬 성과도 눈에 띈다. 이들은 조선 후기 ‘醫科榜目’을 중심으로 의관들의 姓貫과 관직 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⁴⁾ 유능한 의관의 경우에는 인물 개인의 연구가 누적되기도 하였다.⁵⁾ 또한, 내의원의 의약동참과 내침의로 활동한 의관들의 명단을 분석해 이들의 성격과 관직 이동을 해명하기도 하였다.⁶⁾ 의관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학생도

-
- 1) 전문직 중인의 결속에 대해서는 나영훈, 「조선후기 관상감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에서 음양과 중인의 친족 결속에 대해 다룬 바가 있다.
 - 2)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김양수, 『조선후기 중인 집안의 발전』, 백산자료원, 2008; 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 3) 주로 역관 집안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이들이 가계를 이어가며 역관을 계승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김양수, 「조선후기 역관가문의 연구-김지남, 김경문 등 우봉김씨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32, 백산학회, 1985; 「조선후기 역관가문의 연구-변응성, 변승업 등 밀양변씨가계를 중심으로」,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조선후기 중인 집안의 활동연구-장희빈, 장현등 인동장씨 역관가계를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1,2, 무악실학회, 1990~1; 「서울 중인의 19세기 생활-천녕현씨 역관 탁의 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6,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 4) 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동방학지』 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이규근,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 조선시대사학회, 1997.
 - 5) 김양수·안상우, 「조선후기 의관 집안의 활동」, 『동방학지』 13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인식」, 『의사학』 22, 대한의사학회, 2013 등.

와 이들의 교육방식을 연구한 성과도 있다.⁷⁾ 더 나아가, 조선시대 활동한 의관 4,511 명의 명단을 목록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⁸⁾ 조선시대 중인 의관을 포함하여 의학사의 연구 동향을 소개한 최근 연구 성과도 있다.⁹⁾

이처럼, 조선시대 의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과가 누적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의과 중인의 신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직 중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들의 강력한 가계 결속과 世傳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을 성관 단위로 연구한 성과나 특정 가계로 묶어서 검토한 성과 모두에서 同姓 부계 친족의 강한 세전성이 전문직 중인의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강력한 동성 부계 친족 집단의 결속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이나 가계를 통한 통계 분석적 방법, 그리고 특별한 가문의 사례를 통한 미시적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통혼관계를 맺고 있는 가계의 연결망에 관해서는 자세히 검토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방목’에는 부친과 조부, 증조와 같은 직계 혈통과 함께 외조나 처부 등 통혼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통혼관계에 대한 분석이 소략한 점은 아쉽다. 물론, 외조나 처부의 직역이나 성관을 분석하여 중인 집단 내부에서 통혼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지적은 있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가문과 어떻게 혹은 얼마나 긴밀한 통혼관계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잡과방목’이나 ‘八世譜’와 같은 족보에 나타난 특성을 보면 본인의 부친, 조부, 증조 등 동성 가계를 우선적으로 기입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외조와 처부도 함께 기록해두었다. 특별한 경우에는 처조부와 처증조부, 처외조부까지 기입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⁰⁾ 이는 잡과 중인들의 친족 범주에서 통혼관계가 중요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필자는 잡과에서도 醫科 하나의 전공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간

6) 이규근, 「조선후기 내침의 연구」, 『인문과학논집』 20,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이규근, 「조선 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 조선시대사학회, 2001;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7)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6, 한국의사학회, 2013.

8)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9)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 대한의사학회, 2010.

10) 예컨대, 의과 입격자 李福膺의 경우 부, 조부, 증조에 이어서 외조와 처부, 처조부, 처증조부, 처외조부까지 기입되어 있다(『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19))). 물론 의과방목에 모든 인물의 처부와 외조의 가계가 수록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외가와 처가의 가계까지 수록해놓은 점은 잡과 중인에게 통혼 대상자의 家格이 중요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많은 전문직 중인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 중인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다. 대부분의 중인 가계는 하나의 전공만 세전하지 않았고 여러 전공을 넘나들며 잡과에 입격하였기 때문에 부친과 자식의 전공이 다르고 장인과 사위의 전공이 다르며 형제간에도 전공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 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에 따라 특정한 전공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가계도 눈에 띈다. 우봉김씨의 金指南 가계는 주로 역과를 전공하였고 천안이씨의 이수기 가계는 주로 의과를 전공하였으며 순흥안씨 안국신 가계는 음양과의 대표적인 가계였다. 물론 이들 가계 내부에도 다른 전공을 역임한 사례가 확인되지만 대체로 주로 역임하는 전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전공 세습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각 잡과의 입격 총수가 다르다는 점은 잡과 입격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연구했을 때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체 잡과 입격자는 6,115명이고 이 가운데 역과 입격자는 2,97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율과 입격자는 726명으로 12%에 불과하다.¹¹⁾ 이들 잡과 입격자 6천명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면 역과 입격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잡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각 전공의 입격자를 구분해 분석하는 방식도 병존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전문직 중인 가운데 의과 중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친족 네트워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공고한 결속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통혼 관계는 실제로 어떠한가. 이를 위해 의과 입격자의 명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醫科先生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²⁾ 『의과선생안』에는 상세한 친족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의과선생안』의 책제는 ‘선생안’이지만 관원의 명단을 수록한 일반 선생안이 아니다. 『의과선생안』은 ‘의과방목’의 하나로 의과 입격자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잡과는 1397년(태조 6)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실시되었으며, 전체 233회에

11)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38면.

12) 『醫科先生案』(규장각, 古 7606-1).

걸쳐 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잡과방목’은 모두 177회분, 76%에 걸쳐 남아 있다.¹³⁾ ‘의과방목’의 경우 단과방목은 모두 5종이 남아 있는데 1498년(연산군 4)부터 짧게는 1870년(고종 7), 길게는 1894년(고종 31)까지의 기간 동안 입격한 사람의 명단을 수록하였다.¹⁴⁾ 현재까지 알려진 의과 입격자의 전체 인원은 총 1,548명이다.

필자는 모든 의과 입격자가 수록된 판본이 아닌 『의과선생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과선생안』은 1498년(연산군 4)부터 1870년(고종 7)까지 식년시와 증광시를 합쳐 146회의 의과 입격자를 수록하고 있다. 다른 ‘의과방목’과 마찬가지로 16세기의 기록에 누락된 명단이 많다. 1507년 · 1513년 · 1525년 · 1543년 · 1549년 · 1564년 · 1570년 · 1576년 등 16세기에만 8차례에 걸쳐 시행된 의과 입격자 68명이 누락되어 있다.

여기에 1870년(고종 7)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설행된 13차례의 의과 입격자는 기록 범위에서 빠져 있었다. 이 시기는 법전에 규정된 정수인 9명을 초과한 다수의 인원을 선발한 시기였다. 이 기간 13차례 설행된 의과에서 모두 244명이나 선발되었다. 앞서 누락된 16세기 선발 인원 68명과 뒤에 누락된 244명을 합하면 312명으로 전체 1,548명 가운데 1,236명이 『의과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인조대 이전의 의과 입격자와 고종대인 18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의과 입격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조대 이전의 입격자 정보는 소략하여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고종대 정원 이상으로 뽑았던 의과 입격자들은 이전 시기 9명의 정원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뽑혔던 인원들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¹⁵⁾ 이에 따라 1623년(인조 1)부터 1870년(고종 7)까지 입격한 1,100

13)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14~15면.

14) 의과방목은 하버드옌칭도서관, 일본 천리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각 1권씩 5종이 남아 있다. 수록 기간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인데,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이 1870년(고종 7)까지로 가장 짧고, 천리대학교본이 1894년(고종 31)으로 가장 길다(이남희, 「조선시대 잡과방목의 자료적 성격」, 『고문서연구』 12, 한국고문서학회, 1998, 130면).

15) 이남희는 19세기 후반기의 잡과 입격자의 증가에 대해, ① 잡과 시험을 치르기가 쉬워졌고, ② 잡과 운영 체제가 이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이 당시 선발 인원 급증은 인재 선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60면). 이에 따라, 확장되어 선발된 의과 입격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 이전까지인 1870년까지의 의과 입격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타 과거 급제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명을 분석대상으로 조선 후기 의과 입격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친족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들이 공고히 결속한 배경과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의과 입격자의 동성 부계 친족 네트워크

1. 의과 입격자의 가계

의과 입격자의 친족 네트워크는 동일한 성씨를 보유한 ‘同姓 父繫 친족 집단’과 다른 성씨와 혼인한 ‘通婚 친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통혼 친족 집단’은 외가와 처가, 異姓 父邊 친족 집단을 포함한다. 이성 부변 친족 집단은 고모부나 대고모부,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같이 부계 친족에 속하지만 성씨가 다른 친족, 즉 부계와 통혼을 통해 엮인 친족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외가나 처가와와는 다른 통혼 집단이다. ‘동성 부계 친족’과 ‘통혼 친족’을 포함한 친족 간의 연결을 ‘친족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여기서는 우선 동성 부계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의과 중인의 친족 네트워크를 파악하겠다.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623년부터 1870년까지의 의과 입격자 1,100명은 138개의 성관을 가지고 있었다.¹⁶⁾ 가장 상위를 차지한 가문은 전주이씨로 모두 57명이며, 그 다음은 경주최씨 46명, 천녕현씨 41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10개 성관에서 362명의 입격자가 나왔다. 20개 성관에서 574명의 의과 입격자를 배출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과 입격에 특정 성관이 집중된 현상을 알려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성관 분석이 유효한 친족 관계 분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¹⁷⁾ 몇 개의 성관은 잡과에 입격한 인물이 동일한 부계 친족집단으로 구성되어

그 남설이 지적된 것에 비해, 잡과는 1870년까지 선발인원이 증가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1,100명 가운데 성관을 알 수 있는 경우는 1,084명이었고, 16명은 성관이 기록되지 않았다.

17) 미야지마 히로시는 문과 방목 분석에서 성관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門中’을 설정하여 계파를 중심으로 급제 경향을 분석하였다(미야지마 히로시, 「조선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32, 한국사학회, 2008).

있었지만, 전주이씨나 경주최씨 등 다수의 성관에서, 성관은 같지만 여러 계통의 조상을 지녀서 친족 의식이 부족하고, 동일한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잡과 입격자의 분석에서도 성관보다는 문중이나 가계와 같은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姓源錄』 등의 족보 자료를 토대로 성관마다 잡과 입격자를 배출한 인물의 계파를 구분하여 성관보다 밀집한 가계를 작성해 분석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잡과와 籌學의 전공자 6,996명을 분석하여 470개의 가계를 확인하였다.¹⁸⁾

이 연구는 성관 분석보다 한 단계 나아가 친족 관계를 보다 긴밀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다만, 동일 선조로 엮은 연결이 5대조를 넘어가거나 9촌의 범위를 넘어가는 인물도 하나의 가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너무 넓은 범주의 친족을 하나로 연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7대조에 의과 입격자를 둔 7대손은 의과 입격자의 후손임을 명분상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10촌이 넘어가는 친족 구성원에게 실제의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먼 친족 관계까지 하나의 가계로 엮으면 그들의 친소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연구는 『성원록』과 다수의 족보 자료를 기초로 검토하였고 따라서 모든 가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가계마다 계파의 연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었다. 예컨대, 어떤 가계는 9촌을 넘어선 범위까지 친족으로 묶이지만, 어떤 가계는 祖孫 관계도 파악되지 않고 친족으로 엮이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는 『성원록』이 대부분 ‘잡과방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잡과에 많이 입격한 가문은 가계 연결이 상세한 것에 비해 그렇지 못한 가문은 매우 영성하게 꾸며진 특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가계를 연결할 필요를 느꼈고, 이들 상호 간의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경우를 하나의 가계로 엮었다. 즉, ‘6촌 이내의 혈족’을 대상으로 가계를 엮는 방식이다. 이는 잡과방목의 기록방식을 따른 것으로 중인들이 자신들의 선대를 기록하면서 동성 부계 친족을 ‘曾祖’까지 수록한 것에서 범위를 확정하였다. 증조를 공유한 혈족은 종조의 손자인 재종형제까지로, 6촌까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6촌 이내의

18)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150~160면.

혈족으로 엮이는 집단을 하나의 ‘가계’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과선생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성 친족은 부친과 조부, 증조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삼촌, 종조, 당숙과 형제, 사촌, 재종형제(6촌)의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을 하나의 범위에 들어오는 계통으로 설정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표 1> 의과 입격자의 ‘가계’ 분포

경주 정	정인우 계	26		-	9	영양 남	남언국 계	7	홍천 피	피재인 계	3	
	정윤수 계	2		최경림 계	4		-	1		-	2	
	-	1		최홍립 계	3		성주 이	이천룡 계		7	최재대 계	3
온양 방	방승검 계	25	경주 최	최정립 계	3	순흥 안	안한성 계	6	직산 최	최창희 계	2	
	방태수 계	3		최도건 계	3		안사일 계	4		최계곤 계	2	
	방승철 계	3		최의립 계	3		안명우 계	3		개성 박	박찬 계	3
태안 이	이흥달 계	24		최원립 계	2		안일신 계	2	창원 황	박서남 계	2	
	이수천 계	4		정송령 계	10		안연옥 계	1		황구정 계	5	
	이덕일 계	4		하동 정	정영충 계		3	밀양 변		변광우 계	6	개성 김
-	2	-	3		-	4	김우창 계		2			
김계선 계	21	정계상 계	3		변귀년 계	4	-		1			
김해 김	김치복 계	4	고령 신	신경뢰 계	10		변경 계	2	제주 고	고승수 계	3	
	김중안 계	4		승평 강	강세홍 계		10	변충일 계		2	고세혁 계	2
	-	2		함평 정	정시교 계		10	변중완 계		2	하음 전	전부춘 계
해평 윤	김광익 계	2		이순창 계	9	청주 한	-	7	안동 김	-	1	
	윤기상 계	21		이익신 계	9		한윤태 계	6		선산 김	김종휘 계	2
	김인수 계	20		-	6		한치형 계	2		김상서 계	2	
천녕 현	해주 김	1		이귀령 계	6	삼척 김	한연순 계	2	양천 허	김이규 계	3	
	현득홍 계	19		이연겸 계	5		김여기 계	6		-	1	
	현진명 계	17		이태창 계	4		김귀령 계	6		허겸 계	3	
온양 정	-	3	전주 이	이장생 계	4	고성 김	김익찬 계	6	아산 장	-	1	
	현후 계	2		이흥준 계	3		김정보 계	3		장백형 계	3	
	정애남 계	17		이준발 계	3		-	1		-	1	

조선 후기 의과 입적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정사근 계	15		이정표 계	2	전주 김	김약려 계	6	나주 박	박성준 계	2
	-	1		이구민 계	2		김극려 계	2		-	2
경주 김	김윤희 계	17	청주 최	이유엄 계	2	곤양 전	-	1	죽산 안	안석현 계	3
	-	3		이중백 계	2		전희남 계	6		-	1
	김제한 계	3		최덕은 계	8	전충상 계	2	김포 정	정사성 계	3	
	김종현 계	2		최의현 계	3	-	6	안동 권	권치중 계	3	
	김경철 계	2		-	1	홍우주 계	5	문성 차	차충익 계	3	
	김하기 계	2		-	10	남양 홍	홍행원 계	3	부안 임	임상함 계	3
	이진화 계	16		밀양 박	박동 계	7	파평 윤	홍득우 계	2	배천 장	장희성 계
이신달 계	9	박민 계	4		홍득하 계	2		나주 임	임기수 계	2	
이안민 계	2	박수택 계	3		윤상준 계	5	-	3	강릉 최	최도진 계	2
-	1	박태원 계	2		-	3	오중설 계	5	최흘 계	1	
원주 변	변희령 계	15	강음 이	박몽룡 계	1	두원 오	오중설 계	5	한양 유	유후의 계	2
	변성남 계	5		이승남 계	7	해주 이	-	1	-	1	
	-	3		이시룡 계	6		이형백 계	4	-	1	
	변희량 계	2		-	3		이예형 계	4	청주 방	방일상 계	2
	변성길 계	2		이팽수 계	2		-	2	-	1	
	변흡 계	2		이천민 계	7	이원직 계	2	광주 이	이승업 계	2	
풍기 진	진이근 계	15	안산 이	이덕홍 계	4	낙안 김	김사남 계	4	-	1	
김태세 계	14	-		2	김득인 계		2	음성 이	이지동 계	2	
김중기 계	3	이재우 계		2	-		1	전주 유	유효성 계	2	
광산 김	-	2	해주 오	오경업 계	7	한천 정	정치 계	4	해주 최	최경립 계	2
	김부녕 계	2		오계생 계	3		정세영 계	2	봉산 정	정사기 계	2
청양 김	김월 계	14	정읍 이	오성창 계	2	정읍 이	이백여 계	4	장기 정	정충록 계	2
	김이수 계	3		-	2		이윤희 계	2	예산 정	정익승 계	2
천안 이	이부길 계	14	주계 최	최득인 계	7	안음 김	김명기 계	4	현풍 윤	윤형원 계	2
	-	1		-	4		-	1	직산 백	백응길 계	2
신평 한	한충남 계	13	평양 조	최해 계	2	개성 고	고정참 계	4	순창 조	조종로 계	2
	한원 계	5		조종창 계	7		장세영 계	3	진천 임	임춘적 계	2
	-	1		-	3	인동 장	-	2	영월 신	신희수 계	1

청주 경	경선형 계	12	삭녕 박	박홍석 계	7		장자방 계	2	문화 유	유홍상 계	1
무안 박	박이순 계	11		-	2		장신우 계	2	비계통	226명	
경주 최	최신립 계	10	의성 김	김대인 계	7	홍천 피	피취완 계	3	계통합	177계(874명)	
	최환 계	9		-	2				총합계	1,100명	

* 가계의 명칭은 최초로 의과 입격자에 오른 인물의 중복된 ‘선대’의 성명을 가계명칭으로 잡았다. 최초 입격자를 가계명칭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형제나 사촌, 재종형제의 동시 입격과 같이 한명의 이름으로 가계를 설정할 때 오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표 1>과 같이 의과 입격자들은 모두 177개의 가계로 엮여있었다. 이는 2명 이상의 6촌 이내 혈족이 의과 입격자를 공유한 집단이다. 이러한 가계를 보유한 인물은 모두 874명이었다. 전체 1,100명의 분석 대상 가운데 79.5%인 874명이 6촌 이내 혈연관계를 의과 급제자 내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의과 입격자는 동성 부계 친족의 강력한 결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의과 입격자를 다수 배출한 가계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위 6개의 가계에서 20명 이상의 의과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가장 많은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는 경주정씨 정인우계로 26명이었다. 이어 온양방씨 방승검계(25), 태안이씨 이홍달계(24), 김해김씨 김계선계(21), 해평윤씨 윤기상계(21), 해주김씨 김인수계(20) 등 5개의 가계에서 20명 이상의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이들 가계에서 배출된 의과 입격자가 137명으로, 이들은 명문 의과 집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정인우계는 그의 아들 鄭麟祥이 1670년에 입격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입격자를 배출하였고 5대손 鄭有恒이 1859년 입격하기까지 이어졌다. 특히 정인상은 1680년 保社原從功臣 3등에 책록된 인물이었다. 그의 아들 鄭趾顯은 정인상의 아들이면서 의술에 精明하다는 이유로 御醫에 제수되었다.¹⁹⁾ 또한 정인상의 손자 정윤설은 조부와 부친이 모두 임금을 모신 집안으로 장래에 쓰임이 있으니 특별히 대우하게 하라는 명을 받기도 했다.²⁰⁾ 정인상의 존재는 정인우 계통이 지속적으로 총애를 받아 ‘世醫’가 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온양방씨 방승검계는 방승검의 손자인 方震夔, 方震夷, 方震紀, 方震綱이 의과에

19) 『승정원일기』 513책, 숙종 45년 2월 13일 병진.

20) 『승정원일기』 1294책, 영조 45년 7월 11일 신묘.

입격하면서 이 4개 계통의 자손이 하나의 가계를 이루었다. 특히 방진기의 직계인 方泰輿는 영조대 어의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의 사후인 1789년에는 방태여의 손자를 위해 특별히 內醫 한 자리를 마련해 제수해줄 것을 내의원에서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전의감직장이었던 方禹疇가 내의에 제수되었다.²¹⁾ 이처럼 방승검계 역시 대대로 전승되는 의과 명문 가계의 대열에 포함되었고 方震夔가 1675년 처음 입격한 이래로 1859년 그의 6대손 方漢箕가 입격하기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의관을 많이 배출한 가계는 계파가 지속하게 된 주요한 선대가 존재하였다. 이들 가계 이외에도 천녕현씨 현득흥계, 현진명계나, 온양정씨 정애남계, 정사근계, 경주김씨 김윤휘계, 경주이씨 이진화계, 원주변씨 변희령계, 풍기진씨 진이근계, 광산김씨 김태세계, 천안이씨 이부길계 등이 의과에서 주요한 명문 가계로 세전을 지속하였다.

특히 경주김씨 김윤휘계는 金慶華가 1650년 의과에 입격한 이래, 그의 7대에 걸친 자손이 끊이지 않고 의과 입격자를 연달아 배출하였다. 그의 직계는 1810년 金耆仁까지 이어졌다. 7대 연속 의과 입격을 보인 유일한 가계로 이는 의과를 입격한 가계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혈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시인의 조부이자 의관인 金光國은 매우 유명한 서화가로도 알려져 의관이면서 다수의 그림을 수집하였고 『石農畫苑』이라는 중요한 저작을 남기기도 하였다.²²⁾ 이 외에 『歷試漫筆』의 저자인 李壽祺는 천안이씨 이부길계의 의관이었고,²³⁾ 『濟衆新編』의 저자인 康命吉은 승평강씨 강세흥계의 의관으로 首醫를 20년이나 역임하였다.²⁴⁾ 또한 『小兒醫方』의 저자인 崔奎憲은 경주최씨 최환계의 일원이었다.²⁵⁾ 이처럼, 다수의 유명한 의관들은 주요한 가계에 속하여 명성을 올리기도 하였다.

21) 『승정원일기』 1662책, 정조 13년 8월 2일 을묘.

22) 황정연, 「석농 김광국(1727~1797년)의 생애와 서화수장 활동」, 『미술사학연구』 235, 한국미술사학회, 2002.

23)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인식」, 『의사학』 22, 대한의사학회, 2013.

24) 이정화, 「강명길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25) 이가은, 「최규현의 『소아의방』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2. 동성 부계 친족과 의과 입격자

필자는 『의과선생안』의 동성 부계 친족 정보를 통해 6촌 이내의 친족, 15개의 관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즉, 손위 항렬의 친족으로는 ① 부친 ② 조부 ③ 증조와 ④ 삼촌 ⑤ 종조 ⑥ 당숙을 추출하였고, 손아래 항렬의 친족으로는 ⑦ 자식 ⑧ 손자 ⑨ 증손, ⑩ 조카 ⑪ 당질 ⑫ 종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일 항렬로 ⑬ 형제 ⑭ 사촌 ⑮ 재종형제(육촌)를 확인하였다. 이들 가운데 의과에 입격한 동성 부계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조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의과 입격자 동성 부계 친족의 범위와 수

손위 계통	부친	조부	증조	삼촌	종조	당숙	소계
촌수	1	2	3	3	4	5	-
명수 [Ⓐ]	392	252	152	226	155	198	637
명수 [Ⓑ]	392	252	152	297	196	323	1,612
동렬 계통	형제	사촌	재종형제				
촌수	2	4	6				-
명수 [Ⓐ]	262	234	197				536
명수 [Ⓑ]	334	377	304				1,015
손아래 계통	자식	손자	증손	조카	종손	당질	
촌수	1	2	3	3	4	5	-
명수 [Ⓐ]	303	164	92	188	109	185	527
명수 [Ⓑ]	379	235	145	284	184	309	1,536

* 분석대상 의과 입격자는 모두 1,100명이다. 이들은 많게는 20명, 적게는 1명과 친족 관계를 유지했고, 이렇게 얽힌 인물이 4,163명이다. 위 표에서는 이 둘의 수효를 함께 적시하였다.

Ⓐ 1명이라도 의과 입격자인 친족을 가진 의과 입격자의 수 : 총합 874명

Ⓑ 의과 입격자와 관계를 맺은 인물의 수 : 총합 4,163명

앞서 보았듯이, 의과 입격자 1,100명 가운데 874명은 동성 부계 친족을 지닌 하나의 ‘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친족은 위의 <표 2>에 나오는 모두 15개의 관계이다. 본인과 친족 관계를 지닌 의과 입격자가 4,163개의 관계로 얽혀 있었다. 부친과 조부, 증조는 단 1명밖에 없으므로 부친, 조부, 증조를 의과 입격자로 가진

사람과 그의 부친, 조부, 증조는 1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삼촌, 종조, 당숙 등은 여러 명을 가질 수 있다. 의과 입격자의 삼촌을 둔 인물은 226명이었는데, 이들의 삼촌은 모두 297명이었다. 즉, 김해김씨 金震栻의 경우처럼 4명의 의과 입격자 삼촌을 둔 경우도 있었고, 단 한명만을 의과 입격자 삼촌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종조나 당숙, 형제나 사촌 등의 관계에서도 여러 명의 친족을 둘 수 있으므로 명수^㉔가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인물이 모두 4,163명으로 이들은 사실 874명이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위 <표 2>에서 중요한 대상은 순위 항렬이다. 순위 항렬에서 의과 입격자를 가진 인물은 자연히 자신의 입격에 선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부친을 의과 입격자로 가진 인물은 392명으로 전체 1,100명 중 35.6%를 차지한다. 조부는 252명으로 22.9%, 증조는 152명으로 13.8%이다. 삼촌은 297명, 27%, 종조는 196명, 17.8%, 당숙은 323명, 29.3%였다.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637명, 57.9%가 5촌 이내의 순위 항렬에 의과 입격자인 친족을 두었다. 이들은 많게는 12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를 선대의 의과 입격자로 지냈고, 평균적으로 1인당 2.53명의 선대 의과 입격자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동일 항렬인 형제, 사촌, 재종형제에 의과 입격자를 지닌 사람은 모두 536명이었고, 이를 순위 항렬을 지닌 인물과 합산하여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764명이 선대나 동일 항렬에서 의과 입격자를 지니고 있었다. 즉, 69.5%의 의과 입격자가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을 받아 의과에 입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순위 항렬의 부계 친족을 둔 사람은 원주변씨 변희령계의 邊昌潤, 邊昌洽, 邊卮 등 3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邊忠吉의 증손이었다. 변충길로부터 4대에 집중적으로 의과 입격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의과에 입격한 집안 어른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2명의 숙부와 6명의 당숙을 두었고, 그 외에 부친이나 조부, 종조 등 모두 12명을 선대 의과 입격자로 두었다. 자연히 그들의 의과 입격에 이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손아래 항렬에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손들에게 의과 입격자의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 379명(34.5%), 손자 235명(21.4%), 증손 145명(13.2%) 등이 직계 자손에게 의과 입격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조카 284명(25.8%)이나 종손 184명(16.7%), 당질 309명(28.1%) 등 방계 자손들에게도 의과 입격에 영향을 미쳤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527명의 의과 입격

자가 후손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많게는 14명, 적게는 1명까지 1인당 평균 2.91명이 의과 입격에 도움을 주었다.

가장 많은 후손을 둔 입격자는 김해김씨 김계선계의 金時鑑이었다.²⁶⁾ 그는 4명의 자식, 4명의 손자, 6명의 증손자까지 모두 14명을 의과 입격자로 두었다. 이어 해주김씨 김인수계의 金善民은 3명의 자식, 3명의 손자, 3명의 증손자와 1명의 조카, 3명의 종손 등 13명을 의과 입격자로 두었다.

이렇듯, 의과 입격자 874명, 전체의 약 80%가 의과 입격자인 동성 부계 친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순위 향렬과 동일 향렬의 영향으로 의과 입격자가 된 인물은 764명, 약 70%였다. 이는 의과 입격자 다수가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으로 의과에 다시 입격하는 재순환 구조의 결속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영향을 그대로 아랫세대에도 전수하면서 의과 입격의 중요한 ‘가계’를 형성하였다.

3. 동성 부계 친족 집단의 관직 世傳性

앞서의 검토는 의과 입격자 내부에서 의과에 입격한 대상만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 의과 입격자와 그 부계 혈통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의과선생안』에 기재된 동성 부계 선조 가운데에는 의과에 입격하지는 않았지만 醫官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내의원이나 전의감, 혜민서 등의 관력을 지닌 선조의 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과가 아닌 다른 전공에 입격한 선조들의 이력도 파악할 수 있다. 『의과선생안』에서 필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1,100명 가운데 부친은 1,075명, 조부는 1,067명, 증조는 1,057명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의 직역이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의과 입격자의 관직 전승 여부와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6) 김시감은 내의원에 속한 의관은 아니었지만, 의학에 능하다는 기록이 연대기에 전할 정도로 특출난 인재였다(『승정원일기』 191책, 현종 6년 11월 26일 무신). 이에 따라 그 후손 가운데 현달한 의관이 많이 배출되었다.

〈표 3〉 의과 입격자 선조(부친-조부-증조)의 전공 분포

구분	잡과							문무과, 생원진사				합계
	의과	역과	산학	음양과	율과	사자관	화원	무과	문과	진사	생원	
부친	481	109	76	28	13	4	3	38	-	3	-	755
비율	63.71	14.44	10.07	3.71	1.72	0.53	0.40	5.03		0.40		100
조부	334	120	97	27	12	2	4	64	1	5	-	666
비율	50.15	18.02	14.56	4.05	1.80	0.30	0.60	9.61	0.15	0.75		100
증조	212	146	111	24	12	-	3	82	1	3	-	594
비율	35.69	24.58	18.69	4.04	2.02		0.51	13.80	0.17	0.51		100
총합	1,027	375	284	79	37	6	10	184	2	11	-	2,015
비율	50.97	18.61	14.09	3.92	1.84	0.30	0.50	9.13	0.10	0.55		100

위 <표 3>은 의과 입격자의 선조 직역을 전공에 따라 유형화 시킨 것이다. 부친의 경우 모두 755명의 전공이 확인되는데, 63.7%인 481명이 의과와 관련된 직역을 지니고 있었다. 조부의 경우는 334명, 50.1%, 증조의 경우 212명, 35.7%였다. 대가 멀어질수록 의과와 관련된 관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譯科와 算學은 오히려 대가 멀어질수록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친대에는 역과 14.4%, 산학 10%로 둘이 합해도 24.5% 밖에 되지 않았지만, 증조대로 오면 역과 24.6%, 산학 18.7%로 둘이 합쳐 43.3%로, 의과의 35%보다 높은 수치로 타과를 전공한 조상을 지니고 있다.

대가 가까워 올수록 의과에의 집중도는 올라가고 반대로 다른 전공의 집중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극명하게 하락하는 것이 역과(24.5 > 18.0 > 14.8)와 산학(18.6 > 14.8 > 9.9), 그리고 무과(13.9 > 9.6 > 4.8)이다. 이와 반대로, 의과는 35.5 > 49.7 > 63.1로 점차 증가한다. 관상감 중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관상감 중인의 음양과 전공도가 부친 67.8%, 조부 50.9%, 증조 41.9%로 대가 가까워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비중이 의과 전공도의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²⁷⁾ 분명한 것은 이들 의과 입격자의 3대조가 모두 가장 유력한 관직으로 “의과”에 종사

27) 나영훈, 「조선후기 관상감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59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부친의 경우 60%가 넘는 인원이 의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명백하게 부친의 전공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과의 세전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의 하나가 된다.

지금까지 의과 입격자의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과 세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전성은 가계 내에서 전승되는 관계만을 설정한 것으로 의과 입격자들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통혼관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과 입격자들은 종으로는 家傳을 통해 세전되어갔고, 횡으로는 통혼을 통해 결속되어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계나 처계 등 통혼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의과 입격자의 통혼 네트워크

1. 의과 입격자 통혼 친족의 범주와 관계

잡과 중인의 성관이나 가계, 친족 등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통혼 관계를 다루더라도 외조나 처부의 성관이나 전공 유사도만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좀 더 세밀한 통혼 관계는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특정한 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인 전체의 통혼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필자는 의과 입격자의 외조나 처부의 성관만을 분석하지 않고 이를 통해 파생될 수많은 통혼 관계에 주목하였다. 외조나 처부, 그리고 부친과 조부, 증조 등의 동성 부계 친족 정보를 활용하면 해당 인물이 맺고 있는 다양한 통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목이나 선생안에 수록된 5조(부친·조부·증조·외조·처부)의 기록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통혼 관계에서는 외조나 처부의 기록만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 5조의 상호 관계를 활용하면 다양한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분석 대상자(A)의 父親이 ‘다른 누군가 의과선생안에 포함된 대상자(B)’의 外祖와 동일인이라면 A는 B의 外삼촌이 되고 반대로 B는 A의 甥姪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A의 부친이 B의 처부가 된다면 A는 B의 처남이 되고 B는

A의 매형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²⁸⁾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서 A의 5조와 B의 5조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면 아래의 <표 4>와 같은 통혼 친족 집단을 추출할 수 있다.

<표 4> 분석대상자 A와 B의 추출 가능한 통혼 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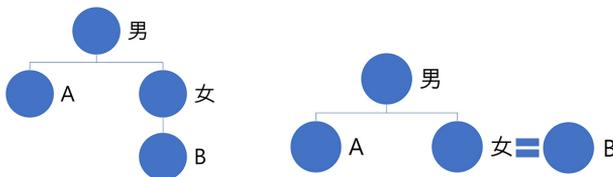
구분	A					
	관계	부친	조부	증조	외조	처부
B	부친	<동성 부계 친족>			甥姪	매형
	조부				고종 사촌 <고모 자>	고모부
	증조				내당숙	대고모부
	외조	외삼촌	외사촌 <외삼촌 자>	외당질	㉔이종 사촌 <이모 자>	㉕이모부
	처부	처남	처조카	처중손	㉖姨姪	㉗동서

* ㉔ A의 외조가 B의 외조인 경우, A와 B는 외사촌이면서, 본인이나 형제가 될 수도 있다. ㉕ A의 처부가 B의 처부인 경우, A는 B의 이모부이면서, 부친이 될 수도 있다. ㉖ A의 외조가 B의 처부인 경우, A는 B의 이질이면서, 자식이 될 수도 있다. ㉗ A의 처부가 B의 처부인 경우, A와 B는 동서이면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4가지 경우는 여러 관계가 혼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관계에서 A와 B는 부친이 다르다는 경우의 수를 적용하면, 위 표에 서술한 하나의 관계만 추출된다.

위 <표 4>와 같이 상호간의 5조를 알 수 있다면 외가 계열의 친족, 처가 계열의 친족, 異姓의 부계 친족까지 모두 16개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에 주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던 외조와 외손, 처부와 사위의 관계까지

28) A와 B의 관계도 (예시)

- ① A의 부친이 B의 외조가 되는 경우, A는 B의 외삼촌이고 B는 A의 甥姪이다.
- ② A의 부친이 B의 처부가 되는 경우, A는 B의 처남이고 B는 A의 매형이다.



합하면 모두 20개의 통혼을 통한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조와 처부의 통혼 관계만 분석되었던 기존의 틀을 넘어서 외가와 통혼을 맺은 이모부나 처와 통혼을 맺은 동서, 姨姪, 그리고 부계 친족 가운데 이성의 친족인 대고모부, 고모부, 매형 등의 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모부나 고모부 등 이들 통혼을 맺은 친족은 다수인 경우도 있는 만큼 훨씬 많은 통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주로 외조나 처부의 성관만으로 통혼 관계를 살폈던 분석보다 확장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필자는 1,100명 의과 입격자의 20가지 통혼 관계에 있는 인물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물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의과 입격자 통혼 관계 대상자와 그 수치

구분	외조계			처부계			이성 부변			합계
	외조	외삼촌	이모부	장인			대고모부	내당숙	고모부	
손위										소계
촌수	2	3	3	1			4	5	3	
명수 [㉠]	143	144	119	182			109	135	141	599
명수 [㉡]	143	174	140	182			123	167	157	1,086
동렬	이종사촌	외사촌		처남	동서		매형	고종사촌		소계
촌수	4	4		2	2		2	4		
명수 [㉠]	110	146		163	119		172	153		596
명수 [㉡]	136	178		196	131		196	184		1,021
손아래	외당질			처조카	이질	처종손	사위	외손	생질	소계
촌수	5			3	3	4	1	2	3	
명수 [㉠]	103			115	105	73	151	106	137	480
명수 [㉡]	165			151	137	109	175	139	170	1,046
합계	외조계	명수 [㉠]	407	처부계	명수 [㉠]	390	이성 부변	명수 [㉠]	615	886
		명수 [㉡]	936		명수 [㉡]	906		명수 [㉡]	1,311	3,153

* 분석대상 의과 입격자는 모두 1,100명이다. 이들은 많게는 19명, 적게는 1명과 통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렇게 얽힌 인물이 3,153명이다. 위 표에서는 이 둘의 수효를 함께 적시하였다.

명수[㉠] : 해당 친족을 가진 의과 입격자의 수

명수[㉡] : 명수[㉠]가 가진 해당 친족의 수

예컨대, 외사촌을 지닌 의과입격자는 110명이고, 외사촌은 모두 136명이다.

위 <표 5>에서는 외조계 인물과 처부계 인물, 그리고 이성 부변 친족 인물을 구분하고 해당 친족이 순위 향렬인지 동일 향렬인지 손아래 향렬인지 구분하였다. 외조계의 인물은 외조를 중심으로 외삼촌과 그 자식인 외사촌, 또 그 자식인 외당질이 모두 외조의 후손으로 동일 계통이다. 외조계로 분류된 이모부와 그 자식인 이종사촌은 외조계와 통혼 가계에 있는 친족이다. 이모부는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의 통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부계의 인물은 장인을 중심으로 처남, 그 자식인 처조카, 또 그 자식인 처중손이 모두 장인의 후손으로 동일 계통이다. 처부계로 분류된 동서와 이질은 처부계와 통혼 가계에 있는 친족이다. 동서는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통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성 부변 친족의 인물은 대체로 복수로 존재한다. 대고모부와 내당숙이 부자 관계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며 고모부와 그 자식인 고종사촌이 하나의 가계를 이룬다. 또한 매형과 생질이 하나의 가계이다. 여기에 사위나 외손은 본인 소생의 여식과 통혼을 맺은 또 하나의 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성 부변 친족은 최소 4개 이상의 통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가깝게는 1촌인 사위부터 멀게는 5촌인 내당숙과 외당질 관계까지 5촌 이내의 친족을 통혼 관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분석의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인물을 통혼 범위에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의과 입격자와 직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만을 분석 대상에 넣었다.

위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외조계의 통혼 관계를 지닌 의과 입격자는 407명이다. 이들과 관계를 맺은 의과 입격자는 중복을 포함하면 936명이다. 처부계의 통혼 관계를 지닌 사람은 390명이며 이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906명이다. 가장 많은 수는 이성 부변 친족의 의과 입격자를 둔 사람인데 모두 615명이며 이들은 1,311명과 통혼관계를 맺었다. 이성 친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관계가 모두 8개로 가장 많기 때문에 나온 수효로 보인다. 외가나 처부, 이성친족의 영향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순위 향렬에 통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두 599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1,086명과 통혼 관계를 맺었다. 전체 1,100명 가운데 54.5%가 순위 향렬에 의과에 입격한 통혼 친족이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의과에 입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동일 향렬에 의과에 입격한 통혼 친족이 있는 사람은 모두

596명으로 1,021명과 통혼 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선후 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역시 절반이 넘는 사람이 동렬의 통혼 친족을 두고 의과에 입격하였다. 의과에 입격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순위 향렬이나 동일 향렬의 사람은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795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72.4%로 의과 입격자는 통혼 친족 가운데 순위 향렬 혹은 동일 향렬에서 다수의 입격자를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손아래 향렬에 통혼 친족이 있는 사람은 480명이었고 이들은 1,046명과 통혼 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의과 입격자인 분석대상자에게 영향을 받아 의과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향렬에 상관없이 통혼 친족을 의과 입격자로 둔 사람은 전체 1,100명 가운데 80.5%인 886명이었다.

886명의 의과 입격자는 많게는 19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통혼 친족으로 두고 있었고 이렇게 얽혀있는 사람은 중복 인원을 포함하여 3,153명이었다. 1명당 평균 3.5명과 통혼관계로 엮여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온양방씨 방승겸계 方禹疇는 가장 많은 통혼 친족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19명과 통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외조부는 양천 許信, 외삼촌은 許礎, 이모부는 경주 金聖守와 온양 方泰達이며 이모부의 자식인 이종사촌으로 金光國, 외삼촌의 자식이자 외사촌으로 許寬이 있었다. 또한 그의 장인은 천안 李祉膺이며 처남은 李重臨과 李重晉, 처조카는 李在璿, 李在珩, 李在璜, 처중손은 李命錫, 李灃錫이었다. 이질로 직산 崔重善이 있었다. 그의 이성 부변 친족으로는 대고모부가 양천 許礎이고 내당숙이 許寬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방우주에게 외삼촌과 대고모부가 동일인인 양천 허추였는데 이는 양천허씨 가문과 온양방씨 가문이 겹사돈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허추는 방우주의 증조인 방세겸의 딸과 혼인하였고 허추의 여동생이 방우주의 부친인 방효민과 혼인하였다. 따라서 방우주에게 허추는 대고모부이면서 외삼촌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한편, 매형으로는 경주 崔學仁, 외조카는 전주 李浩健 등이 있었다. 이렇듯 방우주는 17명, 19차례에 이르는 다양한 통혼 친족을 의과 입격자로 두고 있었다.

그 통혼망을 보면 외조계로는 양천허씨 허겸계와 외조의 사위로 통혼을 맺은 이모부 경주김씨 김운휘계와 온양방씨 방승철계가 있었다. 처부계로는 천안이씨 이부길계와 처부의 사위인 직산최씨 최창희계가 있었다. 그리고 부계의 이성 친족으로 겹사돈인 양천허씨 허겸계와 경주최씨 최신립계, 전주이씨 이귀령계 등이 있었다. 즉, 온양방씨인 방우주는 모두 7개의 가계와 통혼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겹사돈을 맺은 양천허씨 허겸계와 8명의 의과 입격자를 배출한 천안이씨 이부길계는

방우주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부길계는 이수기라는 걸출한 의관을 배출한 명문 의가였고 김윤휘계는 7대를 연이어 의과에 입격시킨 또 하나의 명문 의가였다. 최신립계 역시 10명 이상의 의관을 배출한 명문이었다. 물론 방우주의 가계 자체가 가장 많은 통혼망을 보유한 명문 의가였음은 자명하다. 이처럼, 당대의 명문 의관 가계는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한편, 단 하나의 통혼망을 가진 경우도 있다. 전체 219명이 단 하나의 통혼관계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예산정씨 丁載熙가 광산김씨 내당숙인 金進源과만 통혼을 지닌 것과 같이 멀게는 5촌 외척과 통혼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가깝게는 강릉최씨 崔行泰가 한천정씨 장인인 鄭晚禧와만 통혼을 지닌 것과 같이 긴밀한 통혼 관계도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라도 의과 입격자 상호 간에 통혼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886명이나 되며 그것이 전체 의과 입격자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이들 간의 횡적 결속이 공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2. 의과 입격자 가계의 상호 연결과 결속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가계가 어떤 가계와 통혼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 간의 상호 결속력은 어느 정도로 파생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의과 입격자의 통혼관계망은 외조와 처부의 성관만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긴밀한 ‘통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아래 <표 6>은 필자가 앞서 제시한 177개의 가계를 기준으로 가계 대 가계의 통혼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예컨대, 방승검계의 친족 25명이 맺고 있는 통혼 가계가 몇 개였는지를 살피고 (1단계), 여기서 파생된 31개의 가계가 또 어떤 가계와 통혼을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2단계),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 가계가 어떤 가계와 또 통혼으로 엮였는지를 살폈다 (3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통혼 관계가 몇 개의 가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6〉 177개 가계의 단계에 따른 통혼 연결 정도

구분	성관명	가계명	통혼 연결 정도							
			1단계	비율	2단계	비율	3단계	비율	최종	비율
상위 8개 가계	온양방씨	방승검 계	31	18%	109	62%	152	86%	156	88%
	태안이씨	이홍달 계	24	14%	111	63%	148	84%	156	88%
	천녕현씨	현진명 계	19	11%	90	51%	143	81%	156	88%
	경주이씨	이진화 계	18	10%	85	48%	144	81%	156	88%
	광산김씨	김태세 계	17	10%	84	47%	138	78%	156	88%
	김해김씨	김계선 계	16	9%	83	47%	142	80%	156	88%
	청주경씨	경선행 계	16	9%	86	49%	146	82%	156	88%
	경주정씨	정인우 계	16	9%	88	50%	144	81%	156	88%
하위 8개 가계	제주고씨	고세혁 계	2	1%	24	14%	111	63%	156	88%
	청양김씨	김이수 계	2	1%	13	7%	61	34%	156	88%
	선산김씨	김상서 계	2	1%	12	7%	58	33%	156	88%
	경주김씨	김중현 계	2	1%	7	4%	45	25%	156	88%
	경주이씨	이안민 계	2	1%	7	4%	50	28%	156	88%
	경주김씨	김경철 계	2	1%	6	3%	33	19%	156	88%
	강릉최씨	최홀 계	2	1%	6	3%	24	14%	156	88%
	강릉최씨	최도진 계	2	1%	4	2%	19	11%	15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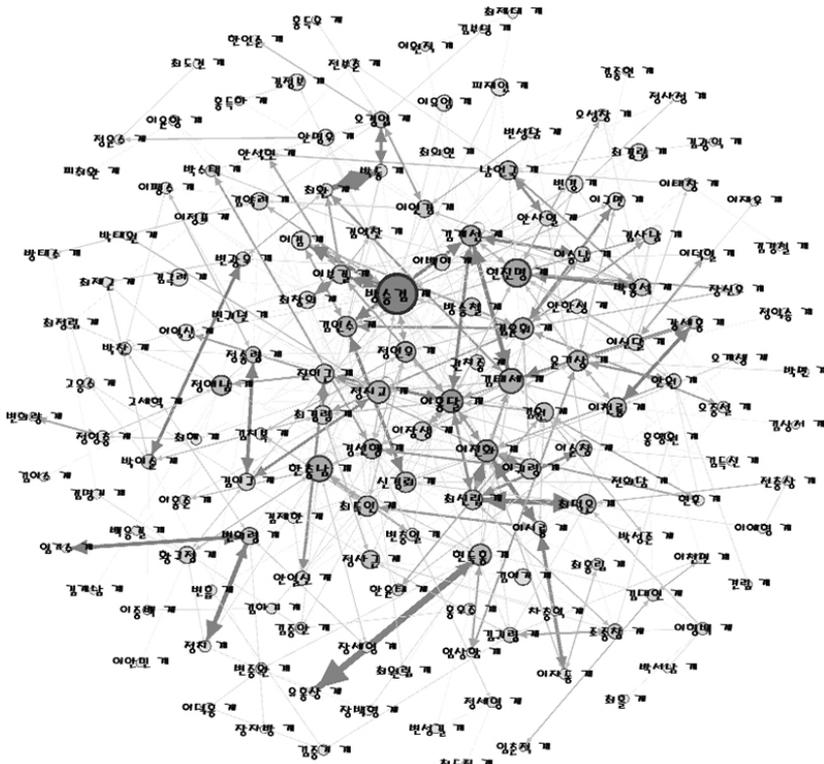
* 여기 포함된 가계는 모두 서로 최종적으로 연결된 156개 가계 가운데, 상위 8개와 하위 8개 가계를 제시한 것임.

* 전체 가계수는 177개지만, 통혼망을 지닌 가계는 모두 164개 가계임. 이는 15개 가계가 통혼 관계가 아예 없는 가계였기 때문임.

분석대상이 된 177개의 가계 가운데 통혼망을 보유한 가계는 164개였다. 이들 통혼망을 지닌 가계 가운데 8개의 가계를 제외한 156개의 가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호 간에 연결이 확인된다. 이들 가계를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서 1단계 통혼망을 기준으로 상위 8개와 하위 8개 가계만을 제시하였다. 놀라운 것은 최종적으로 177가계 가운데 88%인 156개의 가계가 몇 단계 거치긴 하여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가운데 방승검계나 이홍달계 등 상위의 가계는 3단

계 만에 80%가 넘는 가계가 상호 간에 연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예컨대, 태안이씨 이흥달계의 사례를 보면 1단계 연결은 24개 가계였다. 이들 24개 가계의 통혼망은 김계선계가 16개, 진이근계 11개, 최신립계 12개, 이진화계 18개, 이장생계 8개, 강세홍계 5개, 이부길계 12개, 정인우계 15개, 김원계 11개, 최경렴계 9개, 현진명계 19개, 차충익계 2개, 김하기계 3개, 신경뢰계 12개, 안한성계 6개, 윤기상계 12개, 방승검계 30개, 김득신계 2개, 고세혁계 1개, 한충남계 17개, 김인수계 15개, 이신달계 8개, 정애남계 12개의 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중복된 가계를 제외하면 이흥달계와 2단계의 통혼망을 가진 가계는 111개로 전체 63%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3단계의 통혼망을 확인하면 중복을 제외하고 148개, 84%의 가계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이흥달계와 연결된 ‘통혼 네트워크’를 최대치로 확인해본 것이다. 모두 156개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이흥달계'를 중심으로 연결된 156개 가계의 '통혼 네트워크'

위 <그림 1>에서 원의 크기는 상호 결속을 맺은 통혼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의 굵기는 어떤 특정 가계 상호 간의 결속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방승검계와 이흥달계, 현진명계, 김태세계, 이진화계 등 앞서 다수의 혼망을 보유한 상위권에 있는 가계들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들은 1단계 혼맥부터 방대한 연결을 보유하고 있다. 1단계 연결부터 다수의 통혼망을 유지한 가계는 그렇지 못한 가계보다 당대에 미친 영향력이 훨씬 컸다. 예컨대, 거대한 통혼망을 보유한 이흥달계는 방승검, 이진화, 현진명, 김계선 등과 직접적인 통혼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태세, 김윤휘계와는 직접 통혼을 맺지는 않았지만 김계선, 이진화, 강세홍, 이부길계 등을 통해 김태세계와, 최경림, 방승검, 김인수계 등을 통해 김윤휘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주요하고 방대한 8개의 가계는 서로 간의 통혼관계 역시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의과 명문 별열 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⁹⁾

물론, 하위 8개 가계 역시 한 단계 느리지만 결국에는 이들 156개의 통혼망에 포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청양김씨 김이수계를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정애남계와만 단일한 통혼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金槃가 鄭東賓의 사위였던 것이다. 그렇게 연결된 정애남계는 13개의 가계와 통혼을 맺고 있었다. 여기에 이흥달계와 이부길계 등 방대한 통혼망을 가진 가계와 연결된다. 결국, 3단계에는 61개 가계와 통혼망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156개 ‘통혼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의 규모나 家格에 따라 통혼의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 의과 입격자들은 결국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의과 입격자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든 가계간의 연결이 긴밀했음을 알려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전체 의과 입격 가계 177개 가운데 88%에 달하는 156개 가계가 이처럼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된 ‘통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결속은 의과 입격자를 중심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의과 입격자 가계만의 결속이 확인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의과 입격자가 자기들끼리만 결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잡과 중인의 혼맥 속에서 다양한 전공들과도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물론 의과 출신들끼리의 결속이 보다 우선적이었는데 이는 아래의 <표

29) 의과 명문 별열과, 주요 가계들의 통시적 분석 역시 필요하지만, 본 논문은 의과 입격자의 결속에 보다 초점을 맞춘 만큼 상세한 분석은 별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의과 입격자 외조-처부의 관직 유관성

구분	잡과							문무과, 생원진사				합계
	의과	역과	산학	음양과	율과	사자관	화원	무과	문과	진사	생원	
외조	195	149	116	18	4	5	2	72	1	8	-	570
비율	34.21	26.14	20.35	3.16	0.70	0.88	0.35	12.63	0.18	1.40	-	-
처부	239	163	106	25	9	3	4	54	-	3	1	607
비율	39.37	26.85	17.46	4.12	1.48	0.49	0.66	8.90	-	0.49	0.16	-
총합	434	312	222	43	13	8	6	126	1	11	1	1,177
비율	36.87	26.51	18.86	3.65	1.10	0.68	0.51	10.71	0.08	0.93	0.08	-

의과 입격자들의 통혼망에 있는 모든 전공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의과선생안』에 있는 입격자들의 외조와 처부의 관직을 토대로 이들의 전공을 확인한 것이 위 <표 7>이다. 의과 관원의 외조와 처부는 역시 의과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외조의 34%인 195명이 의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였고 처부의 39%인 239명이 의과에 종사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통혼은 의과 전공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역과와 산학을 전공한 외조나 처부 역시도 다수 존재하였던 것이다. 역과는 외조에서 26%, 처부에서도 26%였고 산학은 외조에서 20%, 처부에서 17%로 각각 나타난다.

이처럼 의과 입격자의 통혼은 의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도 연결된 통혼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의과 입격자에게 가장 중요한 통혼망은 동일한 의과 전공자였다. 약 40%에 가까운 처부를 의관으로 둔 것은 의과의 숫자가 역과나 산학에 비해 적었다는 점을 상기하면,³⁰⁾ 이들의 결속이 동일한 ‘의과’를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0) 의과 입격자 수는 1,548명, 역과는 2,972명, 주학은 1,627명이었다(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124면).

3. 의과 입격자의 동성 부계와 통혼 관계를 포괄한 ‘친족 네트워크’

의과 입격자들의 네트워크는 공고한 통혼망을 통해서도 확보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동성 부계 친족 집단과 이성의 통혼 친족 집단을 함께 고려한 의과 입격자만의 ‘친족 네트워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부계 친족에서 874명, 79.5%가 상호 간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손위대와 동렬을 합하면 764명, 69.5%가 동성 계통의 영향 아래 의과에 입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통혼 친족을 통해서는 886명, 80.5%에서 영향을 받았고 손위 항렬이나 동일 항렬의 통혼망을 보면 765명, 72.4%의 통혼 친족을 의과 입격자로 두고 있었다. 즉, 동성 부계 친족이나 통혼 친족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성 부계 친족과 통혼 친족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지만 하나의 가계에서만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만 받은 인물은 135명이었다. 특히, 해주김씨 김인수계의 金煒達 등 6명, 경주이씨 이진화계의 李命洽 등 5명은 친족 관계만으로 의과에 입격하였고 어떤 통혼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김인수계나 이진화계는 의관 거족 가운데 하나로 그의 친족들은 몇 개의 통혼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은 통혼 친족의 영향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135명은 통혼 친족의 도움 없이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만으로 의과에 입격하였다.

통혼 친족의 영향만 받은 인물은 모두 147명이었다. 특히, 경주정씨 鄭惟覺은 어떤 친족도 없이 통혼관계만으로 의과에 입격하였다. 정유각은 김해김씨 김계선계의 金時鑑을 장인으로 받아들여 4명의 처남인 金由淇, 金由淵, 金由渭, 金由海와 함께 의관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그 계통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풍양윤씨 尹義楨 역시 부계 친족의 도움 없이 외조인 풍기진씨 秦東秀와 외삼촌 秦慶煥, 이모부 경주이씨 李彦教, 경주최씨 崔錫教, 태안이씨 李鎭周 등 다수의 외가 친족들의 영향 아래에서 의관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외가나 처가, 혹은 이성 부면 친족 등의 통혼관계를 토대로 의과에 입격한 이는 147명이었다.

동성 부계친족과 통혼 친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전체 1,100명 가운데 1,021명이었다. 즉, 전체의 92.8%는 어떤 관계로든 의과에 입격한 인물과 상호 간에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과 입격자들의 ‘친족 네트워크’가 상당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렇다면, 조선 후기 의과 입격자는 왜 이렇게 강력한 친족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결속했을까. 또한 이들의 결속은 조선 후기 의학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IV. 친족 네트워크의 결속 배경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가 진출할 수 있는 관서는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이 다.³¹⁾ 이 가운데 내의원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내의원은 주로 왕실인사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실력도 높아야 했다. 내의원에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本廳과 鍼醫廳, 議藥同參廳의 3청을 두었다.³²⁾ 본청은 내의원 전반의 사무를 담당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서였다. 침의청은 주로 침술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고 의약동참청은 御藥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본청의 내의원 관원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대략 10명을 전후하였다.³³⁾ 당상관의 경우 御醫라고 하여 일정한 정원 없이 제수하였다. 어의 가운데 가장 높은 자를 首醫라고 칭했다. 침의청에는 12명의 내침의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효종조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침의들은 주로 의과 입격자보다 지방에서 의술이 뛰어난 인사들을 불러다가 내침의로 제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약동참청에는 12명의 의약동참이 소속되어 있는데 현종조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실 주요 인사의 진료와 御藥을 논의하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의관들을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의과 입격자 뿐 아니라 조정의 儒醫들도 포함되었다. 내의원 본청에 소속된 의관들을 당상과 당하를 구분하여 御醫와 內醫로 별칭한 것과 달리 의약동참과 내침의는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御醫로 대우하였다.³⁴⁾

31)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 의관」, 『동방학지』 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32) 『內醫院式例』, 「官습」.

33) 법전에 근거하면 고종대에는 10명의 내의원 관원이 있었다(『대전회통』, 「이전」, 경관직조, 내의원).

34) 이규근, 「조선후기 내침의 연구」, 『인문과학논집』 20,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 조선시대사학회, 2001.

내의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은 왕실 주요 인사들의 약재를 논의하는 의약동참청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의과 입격자 출신의 의관들도 포진되어 있었지만 왕실의 안위에 관계된 만큼 의과 입격자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왕실에서는 진료 문제를 위해 의과 출신이 아닌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논의하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의학에 밝은 사대부 양반인 ‘儒醫’도 포함되어 있었다.³⁵⁾ 유학자들은 지식인이었고 그 가운데 의서에 두루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³⁶⁾ 이들은 중인보다 신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왕실의 위급한 의약을 논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왕실 인사의 치료는 단지 의관이나 유의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의사라면 신분에 국한하지 않고 불러와 논의하게 하였다.

실제로 의과에 입격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는 매우 유명하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유의도 포함되었지만 중인 신분으로 의과에 입격하지 못한 다수의 의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동의보감』의 저자인 許浚과 독자적인 침술로 명성을 얻었던 李馨益, 지방에서 다양한 의술로 이름이 높았던 皮載吉, 『方藥合編』의 저자인 黃道淵, 『痲疹方』의 저자인 李獻吉, 정조대 『痲疹篇』을 저술한 劉爾泰 등은 모두 의과 입격자는 아니었으나 당대에 매우 저명한 의원으로 평가받았다.³⁷⁾

한편, 의과에 입격한 의관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높은 사람만이 중요한 요직에 오를 수 있었다. 예컨대, 의과에 입격한 1,100명 가운데 首醫 40명을 분석하면 이들이 가계 선조들에게 평균 이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의관이 주요한 가계와 ‘친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의들은 순위 계통의 가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35) 예컨대, 洪旭浩의 경우 공조판서 홍중징의 손자이자 본인이 호조참판에 오른 인물로 의약동참청에 속한 대표적인 儒醫였다(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24면). 이 외에도 의약동참 가운데 사족인 유의는 다수 존재한다.

36) 김호는 16세기 지방에서 의서를 편찬한 대표적인 유의들을 소개하였다(김호, 「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환난상휼의 實踐知」,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한편 조선의 대표적인 유의에 대해서는 김남일의 저서가 참조될 수 있으나(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유의열전』, 들녘, 2011), 여기에는 사족 유의뿐 아니라 의과 중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유의로 보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다수의 유의들의 행적이 포함되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37) 여인석, 이현숙, 김성수, 신규환, 박윤형, 박윤재, 『한국의학사』, 의료정책연구소, 2012, 160~189면.

오히려 평균보다 낮았고,³⁸⁾ 이들이 수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손아래 향렬의 의과 입격에 영향을 주었다. 수의의 손아래 향렬 입격자는 평균의 2배 가량 되었다.³⁹⁾ 이는 의관이 단지 입격의 여부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并世才言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어의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本院員으로 세습의를 말한다. 또 하나는 의약동참으로 사족부터 의관까지 실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뽑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⁰⁾ 즉, 조선 후기의 의학 계통은 ‘친족 네트워크’로 결속되고 세습하는 ‘의과 입격자’와 사대부 계층을 포함하는 ‘유 의’나 의과에 입격하지 못했지만 실력이 뛰어난 중인 의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실력이 강조되고 중시되는 조선 후기 의학 분야에서 의과 입격자들은 공고한 ‘친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과에 입격하지 못했으나 실력있는 의원들보다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내의원 삼청 구성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내의원의 3청에 속한 의원들은 의과 입격 여부에 따라 소속을 분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래 <표 8>은 『太醫院先生案』과 여기에 부록된 「의약동참선생안」, 「내침의선생안」을 토대로 작성한 각 청의 의과 입격자 분포이다.⁴¹⁾

38) 수의 40명의 동성 부계 친족 가운데, 손위 향렬이 있는 인물은 16명이었고(0.4명), 손위 향렬의 수는 40명이었다(1명). 통혼 친족 가운데, 손위 향렬이 있는 인물은 16명이었고(0.4명), 손위 향렬의 수는 28명이었다(0.7명). 당시 의과 입격자 1,100명의 동성 부계 친족 가운데 손위 향렬이 있는 인물은 644명(0.58명), 손위 향렬의 수는 1,641명이었고(1.49명), 통혼 친족 가운데 손위 향렬이 있는 인물은 600명(0.54명), 손위 향렬의 수는 1,090명이었다(0.99명). 즉, 수의의 손위 향렬에 대한 영향은 평균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39) 수의 40명의 동성 부계 친족 가운데, 손아래 향렬이 있는 인물은 32명이었고(0.8명), 손아래 향렬의 수는 97명이었다(2.43명). 통혼 친족 가운데, 손아래 향렬이 있는 인물은 24명이었고(0.6명), 손아래 향렬의 수는 65명이었다(1.63명). 당시 의과 입격자 1,100명의 동성 부계 친족 가운데 손아래 향렬이 있는 인물은 644명(0.59명), 손아래 향렬의 수는 1,621명이었고(1.47명), 통혼 친족 가운데 손아래 향렬이 있는 인물은 501명(0.45명), 손아래 향렬의 수는 1,204명이었다(1.09명). 즉, 수의의 손아래 향렬에 대한 영향은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음을 알 수 있다.

40) 이규상 저, 민족문화연구소 역, 『18세기 조선인물지 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299면.

41) 『태의원선생안』과 그 부록은 요녕성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瘡疹集』에 부록되어 있다(이우성 편, 『창진집』, 서울아세아문화사, 1997).

〈표 8〉 내의원 삼청의 총수와 의과 입격자 현황

구분	본청		의약동참청		내침의청		합계
총원	387		197		202		786
의과 입격자	310	80%	24	12%	16	8%	350(45%)
비입격자	77	20%	173	88%	186	92%	436(55%)

* 본청과 의약동참청, 내침의청에 중복된 인원이 있음. 따라서 전체 인원이 786명은 아님.

내의원 각 선생안에 기재된 인물은 모두 786명이다. 물론 본청과 의약동참청, 내침의청 사이에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중복된 인물도 포함되었다.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내의원의 ‘3廳’ 의관들은 명확하게 계통이 나뉘어 있었다. 전체 786명 가운데 45%는 의과 입격자였고, 55%는 비입격자로, 두 계통의 기준은 의과 입격이었다. 의과 입격자들은 대부분 내의원 본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인조대 이후로는 의과에 입격하지 않은 자는 본청에 소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공고해졌다. 비입격자로 본청에 소속된 77명은 모두 인조대 이전의 인물이었다.

의약동참청과 내침의청은 사정이 달랐다. 여기에는 대부분 비입격자가 소속되어 있었다. 물론, 일부 의과 입격자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90%에 가까운 인물이 비입격자였다. 내침의에 속한 의과 입격자는 단 16명이며, 의약동참청에는 2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내의원 삼청의 소속 인원은 의과 입격 여부에서 명확하게 갈렸던 것이다.

내의원은 왕실의 주요한 인사를 진료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국왕의 치료를 전담해야했으므로 당연히 최고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의과 입격자 출신만으로, 국왕의 약재를 논의하고, 침술을 시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약동참청은 국왕의 약재를 논의하기 위해, 침의청은 국왕에게 침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능한 의원을 초빙해왔던 것이다. 의과 입격자는 대부분 내의원에 소속되었으므로, 초빙하는 대상이 의과 입격자가 아닌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내의원 본청은 공고한 ‘친족 네트워크’를 지닌 의과 입격자들로 장악되었다. 외부에서 모셔온 인사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 외부 인사였다. 대대로 왕실을 위해 종사했던 ‘世醫’는 실력에서야 우위를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내의원은 본청과 의약동참청, 내침의청의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하나는 온전히 실력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또 하나는 오래도록 신뢰를 구축해온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약동참과 내침의가 내의원 본청의 의관들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약동참이나 내침의도 초반에는 사대부 유익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⁴²⁾ 이들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중인 의과집안의 인물들로 충원되고 있었다.⁴³⁾ 이들은 의과에만 입격하지 못했을 뿐 당대에 인정받는 명망 있는 의원이었고 그러한 자격으로 의약동참청과 내침의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이 좋은 의사가 최고였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에게 그의 실력은 자연스럽게 대대로 의업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의관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즉, 『六典條例』의 내의원조에 의하면, “三廳의 의관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世醫子孫을 채용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⁴⁴⁾ 이는 내의원 의관 선발에 대대로 의관을 지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의관직 세습은 당대에 매우 중요한 좋은 의원을 판명하는 기준이 되었다. 유명한 구절로 『禮記』에는 “醫不三世 不服其藥”이라는 구절이 있다.⁴⁵⁾ 즉, 의관은 ‘3세’가 아니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3세’에 대한 의미의 논란이 있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3대에 걸쳐 의원을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⁴⁶⁾ 또 한편으로 ‘家傳秘方’이라는 말은 가문 내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대대로 전승해온 名方을 의미한다. 오랜 의관 집안은 이러한 가전비방을 토대로 의술을 전수해갔다. 이처럼 조선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대대로 의사집안을 한 가계의 전승을 좋은 의원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앞서의 분석에서 같이 의과에 입격한 의관들은 대부분 가계 내부의 전승을 통해 입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대를 이어 의관을 배출하는 것은 큰

42) 박훈평은 의약동참과 내침의 가운데 17세기 양반 적자들을 확인하였고, 18~19세기에도 의약동참이 양반인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20~226면).

43)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 조선시대사학회, 2001, 129면.

44) 『육전조례』 권6, 내의원조.

45) 『禮記』, 「典禮下」, “君有疾 飲藥 臣先嘗之 親有疾 飲藥 子先嘗之 醫不三世 不服其藥”

46) ‘3세’의 의미를 중국의 儒醫들은 “『황제침구』, 『신농본초』, 『소녀복결』의 3가지 책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침구와 약, 服 등 세 가지를 알아야 병을 고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世醫의 전통이 없는 학업 유익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의학서적을 ‘3세’로 해석해 의업을 연명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의 ‘3세’는 대체로 세습의사로 받아들여졌다(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인식」, 『의사학』 22, 대한의사학회, 2013, 494~495면).

영광이었고, 따라서 『의과선생안』에는 본인의 동성 부계 친족의 삼대조 가운데 의과에 입격한 조상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해두어 자신이 ‘세의’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러한 연속된 의과 입격자 가계는 다수 확인된다. 특히, 6~7대를 연이어 의과 입격자를 배출한 가계도 있다. 경주김씨 김윤휘계에서는 金慶華부터 그 7대손인 金蓄仁까지 7대가 의과에 입격하였고, 김해김씨 김계선계에서는 김시감부터 그 6대손인 김기언까지 6대가 의과에 입격하기도 하였다. 3대를 연이어 배출한 가계는 매우 많아 별도로 부기할 수 없다. 이들의 관계는 동성 부계 친족의 세전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이들은 외조의 모계혈통이나, 장인의 처계혈통, 그리고 다수의 통혼 네트워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과에 입격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앞서 분석한 다양한 ‘친족 네트워크’로 의과 입격자는 거의 대부분 상호 간의 관계를 토대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제도적으로도 더욱 공고하게, ‘친족 네트워크’를 통한 의과 입격이 가능하였다. 이는 生徒入屬을 위한 完薦制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잡과 응시는 기본적으로 생도만이 할 수 있었다. 생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과의 고위 관원 3명의 천거를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완천이다. 완천을 통해서 생도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의과의 입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중요했다. 이 관계는 대부분 ‘친족 네트워크’를 활용해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의과 입격에서 ‘가계’는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19세기 『醫科生徒案』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朝鮮醫人志』에 수록된 의관 주요 가계 202개에 포함된 생도가 95%에 달한다고 한다.⁴⁸⁾ 즉, 의과 생도 자체가 주요한 의관 가계에 포함된 인물이 아니면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의관들은 ‘친족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실력을 배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보다 지속적으로 의관을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력을 양성해야만 했다. 의과 명문에 포함되었다고 모두가 의과에 입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과 중인들은 어려서부터의 교육과 기술 전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의과에 입격한 중인들의 나이는 문과급제자 33세, 무과급제자 31세보다 훨씬 이른, 25세를 전후하고

47) 『의과선생안』에는 부, 조부, 증조 가운데 의과에 입격한 인물이 있으면, 천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글자를 붙여 부기해두었다.

48)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6, 한국 의사학회, 2013, 5~6면.

있었다.⁴⁹⁾ 의학의 습득을 위해 이들은 매우 이른 나이부터 각종 醫書를 습득해야 했다. 이는 자연히 집안 대대로 전수되어온 여러 서책들로 교육이 가능하였다. 어려운 의서들을 익히기 위해서 이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가내 교육을 통해 의술을 학습해야 했다. 의관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하는 『本草纂圖』, 『直指方』, 『得效方』, 『和齋指南』 등은 쉽게 익힐 수 있는 서책이 아니었다. 이들의 조기교육은 개인적 관심으로 접근하는 사대부 유학자들에 비해, 의학을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할 수 있었다.

더욱이, 서책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여러 임상 경험들은 ‘친족 네트워크’의 일원들에게 교육을 받아 습득할 수 있었다. 의술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서적에 나온 지식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사례의 임상경험은 개인이 서책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이는 실제 처방을 해본 여러 경험들로 체화될 수 있었다. 이럴 때 주변의 여러 친족 의관들의 도움이 중요했다.

예컨대, 명문 의관 가계인 천안이씨 이부길계에 속한 이수기는 ‘친족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의술을 익힐 수 있었다. 이수기는 전문직 의관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옛 의서들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가 저술한 『歷試漫筆』의 여러 처방들은 이러한 선대 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술의 결과였다. 특히, 그가 ‘古方’이라고 적시한 것은 세전되어 전해지는 비전이라기보다 ‘의과 네트워크’ 속에 통용되는 의학 시술이었고 이수기는 이 도움으로 진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⁵⁰⁾ 한 가계 내에 전승된 비법만을 활용한 것이 아닌 의학과 관련된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의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의원 의관들은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한 ‘친족 네트워크’를 토대로 의과에 입격하고 내의원의 본청을 장악했다. 이것은 단지 의과를 독점하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이들의 결속을 내버려둔 것은 이들의 결속을 병폐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결속을 장려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世醫’를 양성할 수 있었다. 물론 왕실진료는 매우 중요했기에 의약을 논의하고

49) 문과 급제자 평균 연령은 33.7세였고(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80면), 무과 급제자 장원의 평균 연령은 31.8세였다(정해은, 「조선후기 무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205~206면). 한편, 의과 입격자는 평균 25세였다(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동방학지』 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59면).

50)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인식」, 『의사학』 22, 대한의사학회, 2013, 506면.

침을 놓는 일은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의원을 초빙하고 관직을 수여하여 직분을 맡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나 왕실에서는 온전히 신뢰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의원의 존재도 중요하였다. 여러 친족 관계로 얽혀있는 ‘世醫’들은 국가에서 신뢰를 부여해 연대 책임을 묻기에 적합한 존재들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매우 이른 나이부터 의술을 익혔고, 가전의 비법으로 경험 역시 터득하고 있었다. 즉, 실력이 떨어진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

이들의 결속은 현대의 시각으로는 불합리한 집단의 독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대로서는 최선의 방식이기도 했다. 전문직 의관들의 세습과 통혼을 통한 지식·경험의 전수, 그리고 대대로 의업을 했다는 신뢰는 그들 자신과 왕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조합이었다. 경우에 따라서 세의가 아닌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의사가 배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다수의 의원들은 이처럼 대를 이어 의업에 종사하였고, 이것이 바로 유능한 의사를 배출하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관들은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결속하고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의과선생안』에 나타난 1623년(인조 1)부터 1870년(고종 7)까지 의과에 입격한 1,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친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결속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통혼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의과 입격자들의 가계를 중심으로 그 횡적 결속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의과 입격자들의 동성 부계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가계’를 추출하였다. 1,100명의 의과 입격자 가운데 ‘증조’를 공유하는 6촌 이내의 동성 부계 친족을 ‘가계’로 설정하고 여기에 속한 긴밀한 부계 친족 177개를 확인하였다. 이들 177개 가계에는 874명의 의과 입격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성 부계 친족으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인물이 79.5%였던 것이다. 이들은 부친과 조부, 증조의 관계는 물론 삼촌, 종조, 당숙, 형제, 사촌, 재종형제 등 긴밀한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동성 부계 친족을 순위 혹은 동일한 항렬의 친족으로 두어 의과 입격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764명으로 약 70%의 인물이 동성 부계 친족을 의과

입격자로 두고 있었다. 즉, 의과 입격자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동성 부계 친족의 영향 아래에서 世傳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과 입격자들의 ‘통혼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과 입격자 5조(부친·조부·증조·외조·처부)의 상호 관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혼 친족’을 추출하였다. 여기에는 외삼촌, 외사촌, 외당질, 처남, 처조카, 처중손, 甥姪, 姨姪, 매형, 동서, 고모부, 이모부, 내당숙, 외당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5촌 이내의 이성 친족으로 통혼 관계에 놓인 인물이었다. 이 관계를 통해 1,100명의 의과 입격자 가운데 886명이 의과 입격자의 통혼 친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전체의 80.5%가 ‘통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히 외조나 처부의 성관만을 분석하여 그들 간의 통혼 관계만을 추출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실제 영향을 주고받았던 통혼 친족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들 ‘통혼 네트워크’의 연결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혼 가계의 숫자와 그들의 연결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77개의 가계 가운데 88%인 156개 가계는 몇 단계를 거치면 상호 간에 통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내부에는 방승검계나 이흥달계와 같이 방대한 통혼 네트워크를 지닌 가계도 있었는데 이들은 의과의 명문 가계이기도 했다. 2장의 ‘동성 부계 친족’과 3장의 ‘통혼 네트워크’에 속한 인원을 포괄하여 ‘친족 네트워크’의 영향에 있는 인물을 확인한 결과 1,100명 가운데 1,021명, 92.8%가 동성 부계 친족이나 통혼 친족 가운데 하나 이상의 관계를 보유한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의과 입격자는 단 7.2%, 79명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된 ‘친족 네트워크’ 속에 포함되어 강력하고 공고한 결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4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결속을 하고 있었던 배경과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의과 입격자들이 소속된 내의원의 ‘3청’ 소속과 관련되어 있었다. 왕실의 의료를 담당했던 내의원은 자연히 의술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왕실에서는 의과 입격자뿐 아니라 입격자가 아니더라도 실력이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내침의청과 의약동참청에 소속시켜 의술을 펼치게 하였다. 반면, 공고한 네트워크로 묶인 의과 입격자들은 내의원 본청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즉, 왕실의 의료는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 ‘世醫’들과 실력으로 선출된 ‘議藥同參’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왕실 의료는 의약동참과 본청의 세의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는 왕실의 진료가 의술 실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친족 네트워크’로 묶인 의과 입격자들, 곧 ‘세의’들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집단이었다. 의술의 실력이란 결국 대대로 의업을 행했는가에서 판단되기도 한다. ‘醫不三世 不服其藥’이란 말은 3대를 거친 의사 집안의 신뢰를 상징하는 말이었다. 이에 따라, 의관들은 공고한 ‘친족 네트워크’로 결속하고 세전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의관들은 친족 네트워크 속에서 의과 입격과 관직을 독점하였지만 그 속에서 끊임 없이 교류하며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탄탄하게 의학 교육을 가내에서 받을 수 있었다. 家傳秘方을 통한 지식 전수와 다양한 임상경험은 친족 네트워크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의관들이 친족 네트워크를 토대로 강력하게 결속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국가와 왕실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세의’는 곧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였다. 왕실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들의 결속은 불합리한 특정 집단의 독점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결속이기도 했다. 전문직 의관들의 세전과 통혼, 그리고 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전수, 그리고 대대로 의업을 했다는 신뢰는 그들 자신과 왕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조합이었다. 조선시대 다수의 의원들이 이처럼 대를 이어 의업에 종사한 것은 이것이 바로 유능한 의사를 배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관들은 ‘친족 네트워크’를 통해 결속·협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內醫院式例』

『大典會通』

『六典條例』

『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19])

이우성 편, 『창진집』, 서울아세아문화사, 1997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유의열전』, 들녘, 2011

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김양수, 『조선후기 중인 집안의 발전』, 백산자료원, 2008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여인석 · 이현숙 · 김성수 · 신규환 · 박윤형 · 박운재, 『한국의학사』, 의료정책연구소, 2012

이규상 저, 민족문화연구소 역, 『18세기 조선인물지 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김양수, 「조선후기 역관가문의 연구-김지남, 김경문 등 우봉김씨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32, 백산학회, 1985

_____, 「조선후기 역관가문의 연구-변응성, 변승업 등 밀양변씨가계를 중심으로」,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_____, 「조선후기 중인 집안의 활동연구-장희빈, 장현등 인동장씨 역관가계를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1,2, 무악실학회, 1990~1

_____, 「서울 중인의 19세기 생활-천녕현씨 역관 탁의 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6,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진, 「조선시대 醫官選拔」, 『동방학지』 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김호, 「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환난상휼의 實踐知」,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나영훈, 「조선후기 관상감 관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한국학』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한국사학회, 2008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6, 한국의사학회, 2013

_____,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 대한의사학회, 2010

- 이가은, 「최규현의 『소아의방』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의 자기인식」, 『의사학』 22, 대한의사학회, 2013
-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 의관」, 『동방학지』 10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 _____, 「조선후기 내침의 연구」, 『인문과학논집』 20,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 _____,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 조선시대사학회, 2001
- 이남희, 「조선시대 잡과방목의 자료적 성격」, 『고문서연구』 12, 고문서학회, 1998
- 이정화, 「강명길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 황정연, 「석농 김광국(1727~1797)의 생애와 서화소장 활동」, 『미술사학연구』 235, 한국미술사학회, 2002

The Kinship Network and Unity of the Passers of the Uikwa-Examination in the Late Chosŏn Dynasty

Young, hun-na

This paper identified the 'Kinship network' of 1,100 people who entered the Uikwa(醫科)-Examination from 1623 to 1870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ir solidarity.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of the Passers of the Uikwa-Examination(醫科入格者) was confirmed by focusing on 'marriage relationship'. They were strongly united as 'an agnate' and 'marriage relations' were widely influenced. Of the 1,100, 886 were bound by a common marriage between the Passers of the Uikwa-Examination. Of the 177 families who entered the Uikwa-Examination, 156 we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in some way. The background of such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Passers of the Uikwa-Examination was due to the need for a reliable group of doctors in the royal family. They were united for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royal family.

Key Words : medical officer(醫官), medical staff, kinship network, Unity, JungIn(中人), Naeuiwon(內醫院)

